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목하 대한민국 변화의 물결 앞에

누구나 행복을 원한다. 하지만 쉽지 않다. 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시도 자체도 없는 경우가 많다. 변화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해도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하다. 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해야 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험난한 '변할 것 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는 있을 수가 없다. 행복이라는 낙원에 도달하고 싶으면 무조건 변해야 한다. 때문에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당장 그곳을 떠나라. 떠나는 것 자체가 바로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다. 행복은 빼앗고 빼앗기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것이다. 애당초 조물주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내보냈을 때는 그만한 목적과 가치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

다. 그래서 누구나 잘 살아야 되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즉, 인간 개개인의 내부에는 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보석들이 촘촘히 박혀있단 말이다. 단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당신만이 느끼고 있지 못할 뿐, 당신은 매우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했다. 소수의 백인정권이 다수의 흑인들을 노골적으로 차별대우할 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인종격리정책을 백인정권이 포기하도록 만들었던 인물이다. '넬슨 만델라' 등 장기수용이 석방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자유부표가 실시되어 평화적 흑백정권교체가 이뤄지도록 했다. 그렇다. 그들은 흑진주였던 것이다. 그들을 흑진주로 여기게 만

들었던 것이다. 변화의 물결은 이리도 도도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화는 바로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다. 자신을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자기답게 가꿔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고양이는 고양이임을 생쥐는 생쥐임을 인식할 때 가장 빛난다는 뜻이다. 그래야 생쥐 '제리'가 미키마우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변화란 '남'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려는 것이다. 변화에는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익숙하고 사랑한 것들과 이별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별은 가슴이 아프다. 때로는

두렵다. 그러나 떠나야 한다. 진정으로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결단을 못 내린다. 머뭇거리다. 그래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때문에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체적으로 변해야 한다.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역지로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변화의 시대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자멸행위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구조 조정해야 한다. 그 빈자리에 새로운 것을 넣기 위해서. 그러도록 자기 자신을 길들여야 한다.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타인도 사랑할 수 없다. 타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받아들이 수 없다. 그러면 결국 우리리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곧 고독한 삶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진정한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진솔하게 발견하려고 노력할 때 찾아온다. 목하 대한민국은 변화의 물결 앞에 놓여있다. 이에 일부 기독교인은 갖은 수를 써가며 저항하고 있다. 하지만 이겨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해질 것 같기 때문이다.

社說

병역특례 재고할 시기됐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입상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병무청이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제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찬수는 "앞으로 병역지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투병이 아닌 전투경찰이나 소방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전환복무 등도 폐지된다"며 우선 병역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찬수는 "병역지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려고 한다"며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을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된다.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사회에 나와 자신의 특기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상 병역이 면제되는 것이다. 한차례 국제대회 입상 성적으로 병역 혜택을 받는 이런 특례 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관계기관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해왔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韓 弊 煩 刑

韓 弊 煩 刑

▷ 뜻: 한비(韓非)는 진왕(晉王)을 달래 형벌(刑罰)을 펴다가 그 형벌(刑罰)에 죽음.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계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실장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 고

박수훈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당신의 청렴함에 우리 미래 함께 있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4점으로, OECD평균점수인 68점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8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32.3%이며,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는 37.2%로 낮게 나타났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를 '저신뢰 사회'로 평가했다. 그리고 '저

신뢰 사회'에서 우리는 복잡한 인증제도, 불필요한 구비서류 등 수많은 신뢰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이러한 신뢰비용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10점 상승할 때, 경제성장률이 0.52%제고된다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연구결과처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렇

다면, 공직사회가 부패와 저신뢰라는 오명을 떨쳐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공직자의 청렴이다. 마음이 맑고 깨끗하며 욕심이 없는 상태인 청렴한 마음가짐을 토대로 공정하고 올바르게 공직을 수행하면 부패와 저신뢰에 맞서 공직자는 스스로 떳떳할 수 있고 부정한 업무수행을 통해 국민들도 공직사회를 다시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18민주묘지관리소에서도 청탁

금지법의 시행과 더불어 모든 5.18민주묘지관리소와 유족을 동등하게 예우하고 국립묘지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년 전 직원이 청렴서약과 청렴결의대회를 실시하고 반부패 청렴체험주간을 지정하여 전 직원의 청렴도진단과 업무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장성군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 중인 청렴문화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전 직원의 청렴실천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였다. 당신의 청렴함에 우리 미래 함께 있네', 올해 5.18민주묘지관리소의 청렴주간에 선정된 청렴승로 건이다. 이 승로건에는 공직자의 청렴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간절함이 담겨있다. 공직자의 청렴한 태도가 우리나라의 올바른 발전과 밝은 미래를 만드는 초석임을 잊지 않고 나부터가 청렴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청렴승로를 가슴에 새기고 지켜나가야겠다.

Advertisement for 'Korea's Happiness' featuring two women and text: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apped our positions?). It promotes the Korea Development Foundation and the concept of empathy.